■ 7일 취임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인터뷰

"학생중심교육 '실력 광주' 업그레이드"

지난 10월 25일 치러진 민선 4대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안순일(61) 교육감이 7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안 교육감은 취임 전날인 6일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학생은 교육의 중심이며, 학생들의 행동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라며 "학생들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4년 동안 광주교육을 이끌어 갈 안 교육감을 만나 그의 구상과 교육관을 들어봤다.

7일 취임한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인성과 실력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교육 위상 제고를 위해 취임 직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나 제도혁신 등의 조치가 예상되는데.

▲부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겠다. 일선 국·공립·사립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과정 관리 중심의 행정을 위한 조직개편·제도혁신을 추진하겠다. 시기는 내년 초나 내년 신학기 이전이다.

-선거로 분열된 조직을 통합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 인사탕평을 강조했는데.

▲학연이나 혈연을 초월해 능력에 따라 개개인 인품이나 행적을 잘 살펴 인사하겠다. 그동안 지켜왔던 합법성·합리성·투명성·공정성·객관성 등 인사 5원칙을 고수하겠다. 보복인사나 선심성 인사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능력 없는 사람을 고루 안배하는 인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것은 인사탕평이 아니다. 인사예고제·인사클린센터·기관장공모제 등을 정착시켜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조직 통솔과 혁신을 위해 취임 직후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첫단추를 잘 끼워야한다는 부담이 사실 크다. 정책기획단과 협의해 인사 시기와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장은 직위공모제를 통해 12월 초 임명할 생각이다. 윤영월 서부교육장의 경우 6일부터 1개월 정직에 들어갔다. 징계가 끝나면 본인의 의견을 들어본 후 정책기획단과 협의해 인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서부교육장 역시 직위공모제를 통해 임명한다.

-'실력 광주' 전통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안이 있다면.

▲수월성 교육을 보다 강화할 생각이다. 현재 운영 중인 영재교육시스템을 프로그램 중심형에서 탈피하여 시스템 구축형으로 전환하겠다. 시스템 구축형의 경우 고등학교 영재교육 활성화까지 가능하다.

진학지도 교사가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연구비·진학지도 수당 지급을 검토하겠다. 재단이 튼튼한 사립학교재단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다시 의뢰해 볼 계획이다. 무산될 경우 광주시와 협의해 공립형으로 설립할 생각이다. 자금력이 충분한 육영단체나 개인이 자립형 사립고를 신설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다. 교사의 사기 저하는 실력저하를 부추긴다. 사기진작에 힘쓰겠다.

-주요 대학들이 입시에서 논술 비중을 강화하면서 논술교육이 중시되고 있는데.

정책기획단 구성, 제도혁신·투명행정
'인사 5원칙' 고수 인재 적재적소 배치
논술 아카데미·1校-1잉글리쉬존 운영

▲논술아카데미를 설립할 생각이다. 논술아카데미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논술 연수, 논술 장학자료 개발 등 논술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어과는 물론 다른 과목의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초·중·고교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논술교육 자료를 개발해 활용하겠다.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해 논술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논술대회를 개최할 생각이다.

학생들의 논술실력은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의 바탕에는 독서교육이 있다. 책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독서토론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립 중·고등학교를 선호하고 공립학교를 기피하는 이른바 '사고공저 현상'이 만연해 있는데.

▲공립학교 교사의 교수능력이나 개인적인 실력은 결코 사립학교 교사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실력이 있는데도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국가적으로 공립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공·사립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재를 기르겠다는데 누가 동의하지 않겠는가.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동의할 것이다. 반대하면 내가 설득하겠다.

- 영어교육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 대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영어타운 보다는 상설 영어체험교실이 실리적이고 활용도도 높다. 각 초·중·고교의 도서관이나 급식실을 활용해 '1학교 1잉글리쉬존'을 운영, 생활중심의 영어 회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광주지역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영어교육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민의 문화의식 제고인데, 문화교육 활성활 방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건물 하나 세우고 도시 환경을 정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관련 인적 인프라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중인 문화교실을 활성화해 학생 문화예술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에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겠다. '문화예술교육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동부교육장 재직시 추진했던 '1학생 1휴대악기'시책을 확대시행하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행사 때 운집한 학생들이 각자 소지한 악기로 광주찬가를 연주한다면 세계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1945년 보성군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보성남초·보성중·조대부고·광주교대를 졸업했다.
▲광주용산초교 교감·농성초교 교장·광주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광주동부교육장을 역임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광주 운암동 성가대 지휘를 10년째 맡고 있다.
▲만남의 인연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도산 안창호 전기를 평소에 즐겨 있는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가지 습관'을 최근 감명깊게 읽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수시로 시사문제·교육문제를 살핀다.
▲취미는 음악 감상이다.
▲즐겨 부르는 노래는 송창식의 '우리는' 조영남의 '옛생각'이다.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맥주 2~3병, 와인 3~4잔을 마신다.
▲부인 조정희(54)씨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6자회담 재개 및 대북제재 후속조치 조율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미 국무부 니컬러스 번즈(오른쪽) 정무차관과 로버트 조지프(왼쪽) 군축차관이 아소 다로 외상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미·일 "APEC때 北 뺀 5자회담 추진"

아소 외상, 美 대표단 회담후 밝혀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에 북한을 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5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외상이 6일 밝혔다.

아소 외상은 이날 방일중인 미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스 정무담당 차관, 로버트 조지프 군축담당 차관과 회담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APEC 회의는 이달 1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막된다.

아소 외상의 이 언급은 지난 4일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회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5개국간에 대북 압박 논의를 하자는 뜻으로 비쳐 주목된다.

미일 양국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10월 9일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합의했다고 아소 외상은 덧붙였다.

아소 외상은 특히 "일본은 (6자회담에 참가한다는) 정책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6자회담 일본 제외'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번스 차관은 "북핵회담은 6개국이 참석하는 6자회담이고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는 일본"이라면서 "미국은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이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日, 對北 금수품에 김정일 식탁도 표적?

전속요리사 책 참고 품목 선정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도쿄 쓰키지(築地) 수산시장의 다랑어를 아주 좋아한다."

일본 정부가 유엔 제재결의에 따라 대북(對北) 수출금지 사치품 항목을 선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6일 전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권부 인사들이 선호하는 사치품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경제산업성은 김 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로 13년간 일하다 지난 2001년 탈출했다는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의 책 '핵과 여인을 사랑한 장군님' 등을 참고, 항목 작성을 거듭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도쿄 쓰키지 시장의 다랑어를 아주 좋아하며 스키야키(전골요리)용 쇠고기는 마쓰자카(松阪) 쇠고기, 오토바이는 혼다 CB 250, 자동차는 도요타의 셀시오, 에어컨은 '다이킨'을 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컵라면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금지품목으로 선정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보여 제외됐다.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이러한 정보를 참고해 수출금지 사치품 품목을 하나 하나 고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제재결의로부터 한달이 되는 오는 14일을 목표로 수출금지 품목의 작성을 마치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복안으로 현재 관계국과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한 뒤 한국과 중국이 항목 선정에 소극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